"마음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

경전 속의 禪사상 19

생활속에서의 윤회 열반 체득 제시
'유마의 침묵' 반야 空 설한 해탈 경지

유마경 ㉻

글쓴이

혜 원
〈동국대, 선종사전공〉

초기의 선사상의 바탕은 다름아닌 유마적 발상의 반야사상이었다.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의 대승진리를 깨닫는데는 '이입사행'의 실천으로써 그대로 유마의 반야적 실행을 여실히 보인다. '이입' 중 이입(理入)은 '범부나 성인은 동일한 진성을 가지고 있음을 깊히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입(行入)인데 이 행입에는 사행(四行)으로서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報怨行 隨緣行 無所求行 稱法行)이 그것이다. 보원행은 자신의 업을 깊히 숙고하여 현재의 고통을 참아내는 행이며 수연행은 인연에 맡기는 행이며 무소구행과 칭법행은 대승진리의 본질인 일체개공의 실재화를 나타낸 행이다. 이같은 달마선법은 불성에 대한 신심과 그러한 신심으로 중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보살행이다. 유마의 근본정신인 '불이(不二)'법문이 그 근간을 이룸을 알 수 있다.

혜능스님에게 한 납자가 물었다. "외도들도 불생불멸이라고 하는데 스님이 말씀하시는 불생불멸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은 태어나지 않는다거나 죽지않는다고 함을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는 것이지." 생사의 분별이 없는 열반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의 설봉의존이라는 선사는 한 납자가 "생사의 고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묻자, "풀 한포기도 빌리지 말게"라고 하였다. 배는커녕 풀 한 포기에도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생사의 대해를 건너 열반의 언덕으로 가는데 배는 커녕 풀 한 포기도 필요없다는 것이다. 생사가 그대로 열반임을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일본 경도 묘심사의 개산(關山)국사의 처소에 한 운수납자가 찾아 왔다. 국사는 "무엇하러 여기에 왔는가?"라고 물으니, "생사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국사는 한마디로 "나의 처소에는 생사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동산양개의 처소에 한 수행자가 "추움과 더움이 오면 어떻게 피할까요?" 동산은 "왜 춥거나 덥지 않는 곳으로 가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수행자는 "춥지도 덥지도 않는 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동산은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더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선문답은 생사나 열반은 불이의 관계임을 보이는 것이다. 불이의 눈으로 보면 생사도 열반도 꿈과 같은 것이며 때문에 생멸도 거래도 없으며 따라서 보살은 생사 가운데서 열반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문수는 유마에게 불이법문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 유마는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문수는 감탄한다. "문자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불이법문에 드는 것이로다." 문자·언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이의 세계를 묵(默)으로 보인 것이다. 일체의 개념과 그 개념에서 온 망상과 집착의 허물을 완전히 벗겨 버린 것이다. '체로금풍(體露金風, 거센 가을바람에 드러난 앙상한 나뭇가지)'의 묵(默)이다. 선사에게 있어서 '무'자 화두는 무문관을 뚫는 화살임과 동시에 일체 분별을 놓은 안심의 세계를 의미한다. 지도(至道)를 하지 못하고 크게 불안해 하는 혜가에게 달마는 침묵(無)의 회오리에서 '아여여안심경(我與汝安心竟,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이란 한마디는 혜가를 대오시킨다. 이러한 정법안장(佛心)의 이심전심은 중국선종의 사자상승의 혈맥에 근본이 되어 계승됐다.

현장(602-664)이 인도를 여행할 당시, 이미 유마는 전설상의 인물로서 나타나 있음을 그의 〈서유기(西遊記)〉에 명료히 나타나 있지만, 이 경이 서역지방에서 중국으로 넓혀지면서 나중에 당의 시인 왕유는 스스로 '왕마힐'이라고 칭했다고 할만큼 유마는 민중적 혹은 문화적으로 침투되어 있었다. 유마는 이처럼 '정심인(淨心人)'의 표본으로서 나타나, 유마적 삶을 향유하려는 모든이들에게 삶의 현실이 그대로 불토의 세계이고 보살로서의 자타불이의 바라밀행임을 가르쳐준다. 유마의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도 청정'하다는 말은 인간의 영성적 자각과 종교적 자유에 관한 근원적인 실천이법을 제시한 것이며 그의 불이법문에서의 일묵(一默)의 모습은 청정한 마음 즉 무의 세계를 보이는 것이다. 선사상은 이러한 유마적 반야를 체득한 원리이며 선의 세계는 바로 유마의 불이의 세계이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끝)

반야바라밀다 문헌 ⑧

세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삼법인을 자극하고, 모든 유위의 현상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마음을 돌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믿음, 정진, 마음챙김, 선정, 지혜등 다섯 가지 덕을 수행하는 데에 몰두하면 '불법'으로 들어가는 문 '열반, 평화의 상태'를 만나게 된다.

우리가 모든 유위적 것에 대해서 평정한 마음을 키움에 따라 명상에서 평정인 증진시키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김에 따라 믿음은 확고해지고 정진은 강해지고 마음챙김 또한 잘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각은 더욱 집중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힘이 강해질수록 '초월적인' 길은 더욱 가까워진다.

"길은 계속 이어진다. 길이 나타나면 전에는 타파하거나 분쇄하지 못했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덩어리들이 분쇄되고 타파된다."

어떤 사람의 지식이 무엇을 포함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됨에 달려 있다. 성스러운 사람과 일상적인 사람은 '세속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이라는 두 가지의 상이한 존재의 차이를 갖는다.

사람이 도에 들어갈 때 즉, 열반으로 이끄는 길로 향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유위적인 것에서 이탈시킬 때 그는 '초월적'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권위를 지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세속적 견해의 근본이 되는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무위적인 것은 그것들 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열반은 상상할 수 없다 오직 마음 다스리는 길 갈뿐

그러면 어떻게 무위적인 삶, 열반에 이를 수 있을까? 열반이 어떤 것이라고 설명할 적절한 관념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열반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들이 없으며 추리로는 그것에 가깝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열반에 대한 모든 개념은 착각이다.

그러면 성인이 어리석은 범부보다 열반에 훨씬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일까? 우선 명백한 것은 평범한 사람은 실제의 '열반'에 대해서 명확한 관념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안다고 믿는 것은 그들이 만일 열반에 한 번 도달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지금보다 덜 고통스러우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수행을 정진해온 수행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세속인과 구별되는 수행자에게 열반은 '본다'는 의미에서 '깨닫는다'고 표현된다. 이 '보는' 것은 보통사람에게는 없는 중대한 통찰력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세계의 불만족스러운 본질에 대해서 오랫동안 깊이 명상을 한 수행자는 이 세계에는 '고(苦)가 아닌게 하나도 없다며, 스스로 열반의 길을 찾게 된다. 이때부터 '지혜의 눈'이라는 불리는 새로운 통찰 기관이 수행자에게 길을 안내한다.

열반이 수행자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것이 되면 객관적인 의지처로써 작용한다. 하나가 멈출 때 다른 하나가 생겨나 듯이 온전한 불법은 열반 자체로 향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다.

결국 믿음, 정진, 마음챙김, 선정, 지혜등 다섯 가지 덕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열반으로 향한 길을 재촉하는 덕목이다. 그것은 '결코 오온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음식이 뜻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공과 무상과 무집착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우리가 마치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학산책

뱀과 지푸라기

실제 없지만 생각 일어나면 화학반응 일어나 고통 느껴
참선하듯 '고요' 관하면 강박관념 초월할수 있어

경전에 보면 '지푸라기와 뱀' 비유가 있다. 사람들이 뱀이라고 생각을 하여 겁을 먹었으나 알고보니 지푸라기였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있지도 않는 관념(뱀)들에 의해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고 산다. 하루빨리 본래 자유로운 자기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헛된 관념(뱀)에서 벗어나라는 교훈이다.

우리의 문화가 서양의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시간도 없이 서양 문화는 상당 부분 우리 문화를 대치해 가고 있다. 외모도 예외는 아니어서 특히 젊은 여성들 중에는 서양식의 외형에 자신들을 맞추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양의 깡마른 모델들에 견주어 자신들의 몸무게를 지나치게 줄이려는 여성들이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유행하고 있는 각종 다이어트 식품과 요법들은 옳지 않은 상업주의와 맞물려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뚱뚱하다는 잘못된 관념(뱀)을 심어주기에 이르렀다. 아마도 딸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지나치게 몸매에 신경을 써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기를 거짓되게 구속하는 관념(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신경성 무식용증'이라는 질병이 있다. 실제로는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뚱뚱하다는 관념에 깊이 사로잡혀 먹기를 거부하는 질병이다. 이 병을 앓는 환자의 경우 단순히 음식을 보기만 해도 극도의 불쾌감이 몰려온다. 밥을 보거나 냄새만 맡아도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나고 동시에 위장은 뒤틀리고 침샘은 마르며 전체 소화계통이 기능을 멈추게 된다. 이 질병이 심각한 것은 단지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에서 음식 거부 반응이 일어나 심한 경우 음식을 먹지 못해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일단 생각이 들게 되면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 앞 글들에서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에 대응하는 화학분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이 생각과 화학분자 이외에 세 번째 요소가 있다. 이 요소는 고요(silence)이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요소이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신경성 무식용증 환자도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서 생각이 일어난다. 즉, 참선을 할 때 느껴지는 고요한 그 곳이다.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앞선 단어와 앞으로 올 단어 사이의 어떤 속성도 없는 고요한 그 곳. 성인들은 이 고요로부터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아마도 잘못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열쇠는 이 그요에 있는 것 같다.

만약 환자가 생각이나 관념에 달려듦이 없이 바라보는 방법(불교의 관법)으로 자신의 강박관념을 초월할 수 있다면 그 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고요히 관하는 사람이 된다면 일체의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마음과 마음의 심부름꾼인 화학분자들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이라는 믿음은 잘못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는 컴퓨터에 혼선된 입력이 들어가 쓰레기 같은 출력물이 나오는 것과 같다.

생각도 마찬가지 아닐까? 뱀이라는 잘못된 입력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육체적 반응들이 일어난다. 이 반응들은 상상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나 지푸라기를 뱀으로 잘못 보아 생긴 반응일 뿐이다. 즉, 필요치 않은 반응인 것이다. 만약 생각의 근원을 꿰뚫어 본다면 잘못된 관념이 머물지 않으므로 잘못된 행동이 생기지 않는다.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행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생각의 근원을 꿰뚫으려는데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것이 불가의 수행 방법이 아닌가 싶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94-8859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쉽게 공부할
제 6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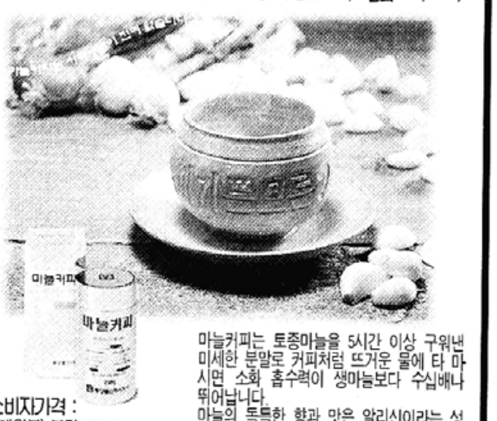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여름반)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개강일시	1999년 6월 2일(수)오후7시
4.교과목	불교의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마늘로 커피를 만든다?
마늘의 뛰어난 효능이 농축된 건강식품, 마늘커피



●소비자가격 :
(1개월분) 분말 230g : ₩39,000
(1개월분) 환丸 250g : ₩45,000

마늘은 일해백리(一害百利)의 천연식품
마늘은 예로부터 냄새를 제외하고는 백가지의 이로운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해백리로 불려 왔습니다.

KBS 1TV 98.7.16 「약이 되는 식품마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BS 1TV 98.3.24 9시 뉴스
97.5.15 9시 뉴스

마늘커피는 토종마늘을 5시간 이상 구워낸 미세한 분말로 커피처럼 뜨거운 물에 타 마시면 소화 흡수력이 생마늘보다 수십배나 뛰어납니다.
마늘의 독특한 향과 맛은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알리신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혈전의 발생을 막아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는 분에게 좋습니다.
또한 마늘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며, 몸에 흡수한 당질을 에너지로 바꾸어 줌으로써 피로감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외에 내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주어 남성의 자양강장 및 여성의 냉증에도 좋습니다.

마늘커피는 휴대하기 간편하고 드시기 편리한 [환丸]제품도 있습니다.
이제, 마늘냄새 걱정없이 마늘의 효능을 경험해 보십시오.

마늘커피
●제조원 : 동양물산주식회사
전화 (02)677-4265
(011)381-8157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42-21-1087-806 천정님 ●

奉 20차 한일 일한 불교 문화 교류대회 祝

한·일 양국의 불교문화 교류와 사회복지 사업 및 학술교류 등을 통한 불교 발전과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을 펼쳐온지 어언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금번에 개최되는 제 20차 대회는 '21세기 정신세계를 주도하는 불교도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일 양국의 불교지도자가 참여하는 기념 법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특히 제20차 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일본의 역대 회장스님들이 참석하시며, 이를 계기로 더욱 성숙된 외교 교류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행사 세부 일정표◇

행사명	일 시	장 소
환영만찬	99년 5월 25일 오후 7시	대구 파크호텔
본대회	99년 5월 26일 오전 10시	김천 직지사
기념법회	99년 5월 27일 오후 7시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소공동 소재)

· 동참하실 분은 신청하시기바랍니다.

불기 2543년 5월 일

사단법인 한일 불교 문화 교류 협의회
명예회장 오고산, 회장 이법홍, 이사장 이홍파 합장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5 3층
전화 (02)725-3677, 720-1708 FAX (02)720-1709